

研究論文

한국문화유산 영어 현장교육, 현안과 대안*

- 불국사와 석불사를 중심으로 -

김종명**

I. 머리말	V. 맺음말
II. 현장교육의 실례: RFR	<참고문헌>
III. RFR 평가	<국문요약>
IV. 불국사·석불사 현장교육안	

I. 머리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최근 국내 일부 대학과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영어로 강의하는 교육과정¹⁾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교육 및 기업체 교육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서구 학계에서는 답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sites visit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례를 통해

* 이 논문은 2004년도 정부재원(대학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4-076-B00001). 이 논문의 일부는 2005년도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대학교, 2005. 5. 14)에서 「불교문화 답사와 교육: 영남지방의 세계불교유산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개정본은 김종명, 「국제대학원 현장교육과정안: 영남지역의 세계불교유산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 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사업 보고서』(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6), 26~45쪽에 게재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한국불교학 전공(jmk@aks.ac.kr).

1) 김종명, 「국내의 ‘해외한국학’ 교육: 현황, 과제, 방향」, 慶熙大學校 亞太地域研究院 開院 20周年 記念 國際學術會議, 地域學으로서의 韓國學의 回顧와 展望, 中國大連外國語學院, 2007年 1月 5日~6日, 29~30쪽 참조.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영어 현장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학²⁾을 영어로 공부하려는 국내의 국제대학원 및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영남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³⁾에 대한 현장교육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문헌자료와 국내외 학부 및 국내 국제대학원에서의 나의 강의 경험⁴⁾ 특히 2005-06학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Program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에서 개설되었던 “Reading and Field Research”(이하 RFR)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제1장에서는 현장교육의 실례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발견된 현장교육의 현안 및 방향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영어 현장교육과정 안을 작성할 것이다.

종교는 동서 문명의 뿌리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문화유산은 종교가 문화의 원천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종교는 문화의 어머니”라고 한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 1886~1965)의 지적처럼, 세계 유산 가운데 상당수가 종교 유산이며, 문화재 가운데 절대 다수가 종교문화재다. 이러한 정황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⁵⁾ 한국의 유산들에 대한 현장교육은 주제별, 지역별 및 이 둘을 통합한 문화권 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⁶⁾ 이 논문에서는 영남지역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불교유산들을 현장교육의 대상으로 한다. 영남지역을 선택한

2) 한국학의 정의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학의 정의 등에 대한 논의는 김종명, 「국제대학원과 한국학의 세계화」, 『국제한국학회』, 2권(1997), 156~158쪽;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에 대해서는 Kim, Keong-il(ed.), *Pioneers of Korean Studies*,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11~88쪽 참조.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서는 慶熙大學校 亞太地域研究院 開院 20周年 記念 國際學術會議, 地域學으로서의 韓國學의 回顧와 展望, 中國大連外國語學院, 2007年 1月 5日~6日 참조.

3) 석불사는 일반적으로 “석굴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굴암이 사상적 측면에서도 석불사임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종명, 「석굴암은 석불사다. 사상적 증거」, 한국종교학회 학술대회, 서강대학교, 2004. 11. 6, 발표논문 참조.

4) 1990년부터 2006년도까지 학부의 경우, 미국 UCLA의 아시아문화언어학부(Dept. of Asian Cultures and Languages), 연세대학교 국제교육교류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부 및 영산대학교 문화관광 전공에서, 대학원의 경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 및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영어 한국학 강의를 진행하였다.

5)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5. 5. 14, 2쪽.

6) 정우락,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영남지역에서의 한국학 통합 연계 교육과 영어 강의, 경북대학교, 2005. 6. 10-11, 7쪽.

이유는 그 지역이 한국불교와 유교사상 최대의 학자들인 원효(617~86)와 이황(1501~70)의 탄생지로서 전통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중심지의 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한국의 세계유산들 중, 불교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를 택한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불교유산은 한국의 유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답사에서 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80% 이상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불국사와 석불사는 창건 기원 등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두 유산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당일 답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서구 한국학 전공자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은 입장에서⁹⁾ 문화유산은 특정 문화의 원형파악을 위한 중요한 자원¹⁰⁾이기 때문에 불교 유산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장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서구의 종교교육계에서는 현장 연구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현장교육은 지난 5년(1999~2004) 동안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 대학의 다윈주의 과제의 핵심이었으며,¹¹⁾ 미국 프레스크트 대학(Prescott College)의 거의 모든 교수들은 생태학과 경제학 등을 포함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현장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장교육을 자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은 많다. 우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교실 안에서의 강의보다 시간이나 노력도 훨씬 많이 요구 된다.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발생되지 않던 사고 등의 위험 요소들도 존재한다.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도 잘 알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는 외국의 경우에도 발견된다.¹²⁾ 현장교육은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1회의 답사에 의해 자신이 관찰한 것을

7) 천경화, 『韓國文化財總說』(白山出版社, 1993).

8) 유홍준, 「팔공산 자락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역음), 『답사여행의 길잡이 8: 팔공산 자락』(돌베개, 1997), 15쪽.

9) 김종명, 「서평: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 1」, 『국제한국학회지』, 1호(1996), 185~187쪽.

10) 신광철, 앞의 논문, 2쪽.

11) Brodeur, Patrice C., "Integrating Site Visits in the Pluralism Project at Connecticut College," *Religious Studies News*(이하 RSN), Vol. 19, No. 4(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AAR), October 2004), p. x.

12) Burford, Grace G., "The Nuts and Bolts of Site Visits," *RSN*, 19-4(AAR, October 2004), p. v.

바탕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며,¹³⁾ 답사 경험과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¹⁴⁾ 또한 현장답사는 성별 문제 등 여러 가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수반하기도 한다.¹⁵⁾ 따라서 현장교육을 지식 습득을 위한 가장 정통적인 자료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현장교육이 가진 이러한 한계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육이 가진 장점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현장교육은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된다.¹⁶⁾ 책을 통한 지식 습득보다는 현장에서의 시청각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사고 능력 개발에도 효과적이다.¹⁷⁾ 특히 종교 답사의 경우, 교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종교적 편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책과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들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며, 학생들의 경험의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된다.¹⁸⁾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성립된 이래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과정학”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¹⁹⁾ 실제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과정 전문가도 별로 없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유산교육과정은 미흡하였으며,²¹⁾ 현

- 13) Berger, Michael S., “Site Visits to Synagogues,” *RSN*, 19-4(AAR, October 2004), p. vii; Flueckiger, Joyce Burkhalter, “Unexpected Learning Opportunities of the Site Visit,” *RSN* 19-4(AAR, October 2004), p. ii.
- 14) Carlson, Jeffrey, “Site Visits and Epistemological Diversity in the Study of Religion,” *RSN*, 19-4(AAR, October 2004), p. xiv.
- 15) Hussain, Amir, “Site Visit to a Mosque,” *RSN*, 19-4(AAR, October 2004), p. viii. 특히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줄리아 크레인·마이클 앙그로시노(공저)/한경구·김성례(공역),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인간과 문화에 대한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나?』(一潮閣, 2000), 9~13쪽 참조.
- 16) Berger, *op. cit.*, p. vii.
- 17) Burford, *op. cit.*, pp. v~vii.
- 18) Carlson, *op. cit.*, p. iv; McGinn, Sheila E., “Integrating Field Research in the Introductory Religion Course,” *RSN*, 19-4(AAR, October 2004), p. xiv.
- 19) 허숙, 「교육과정학 탐구의 성찰: 역사와 전망」, 『教育課程研究』, 20권 3호, 1~22쪽.
- 20) 이돈희, 「大學教育課程의 發展趨勢와 革新의 課題」, 영산대학교 특강(2002. 7. 25) 원고.
- 21) 김귀배, 「유네스코 문화유산사업에서 본 문화유산교육의 의미와 가치」, 문화재청·(사)한국의 재발견, 문화유산 교육세미나 학교 교육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의 집, 2006. 12. 14, 6~8쪽. 2003~04학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양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이란 제목의 강좌 4과목이 개설되었다(<http://plaza.snu.ac.kr/~historia>)(검색일: 2007. 2. 10.).

장교육에 관한 학술적 논문도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현장교육은 주로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학계의 현장교육은 아직 “현장 구경”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구경에 그치는 정도의 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²²⁾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유산국이며, 그 대부분은 불교와 유교 관련 유산들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종교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³⁾ 그러나 국내의 사회·문화 교육과정도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²⁴⁾ 이 교육과정에서 종교는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기여 가능성은 학문적, 실용적 양면에서 크다. 학문적 기여 가능성은 한국학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학 발전에 있다. 이 교육과정안은 한국어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국내의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에게도 한 모델이 될 수 있다.²⁵⁾ 현장교육이 가진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종교적 편견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점²⁶⁾이다. 따라서 종교간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국내의 종교계에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재 위주로 한국학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원의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시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류 열풍의 가장 큰 원인은 인문학 전공 감독과 작가들의 한국적 아이디어 창출에 있었다²⁷⁾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기의 인문학’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도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란 실용적 측면에서의 기여 가능성도 높다. 관광은 이제 세계 제1위의 산업이 되었다. 특히, 현장학습을 위주로 하는 문화관광은 선진국 관광 형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22) Burford, *op. cit.*, p. v.

23) Grayson, James Huntley, *Korea: A Religious History*, 1989; London: RoutledgeCurzon, 2002, pp. 232-235

24) 은지용·모경환,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년도 정기 학술대회, 차이와 공존의 사회과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8월 7~8일, 287~304쪽.

25) 한국학 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원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오만석,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원 모형 개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참조.

26) Burford, *op. cit.*, p. v.

27) 2005년 2월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부 허은희 교수와의 대화에서.

화, 분권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현실이지만, 국내 학계에서 지역 관련 교육과정이 개발된 예는 별로 없다. 전통적으로 한국불교 연구는 주로 엘리트 불교가 그 대상이었으며, 지방 불교는 거의 무시되어 왔으나, 지역별 특징들도 발견되고 있다.²⁸⁾ 따라서 영남지방의 세계불교유산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한국학 교육과정의 개발은 지방 분권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 유산의 세계화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II. 현장교육의 실례: RFR

아래 현장교육과정은 2005학년도 2학기에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에서 개설된 RFR 세미나 과목에 관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주 3시간, 15주, 총 4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계열학생들이 석사 과정 수료 전까지는 수강해야 할 필수과목이었다. 이 강좌는 한국고전문학과 한국불교학을 전공한 2명의 교수에 의한 합동 강좌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이해력 제고를 위해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도 사용되었다. 각 교수는 자신의 전공에 따라 주별 주제를 주도하였으나, 현장 답사시에는 교수들이 모두 학생들과 동행하였다. <표 1>은 2005년 2학기에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 현황이다.

총 수강생 수는 5명이었으며, 모두 석사 과정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전공은 정치학, 사회학, 민속학, 음악학, 사회학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1명, 인도 1명,

<표 1> 수강생 현황

수강생	전공	과정	국적
A	정치학	석사	베트남
B	사회학	석사	인도
C	민속학	석사	러시아
D	음악학	석사	러시아
E	사회학	석사	러시아

28) Jorgensen, John, "Problems in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Buddhism: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2004 Geumgang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Buddhism, October 23~24, 2004, pp. 121~161.

러시아 3명이었다. 이 강좌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²⁹⁾

1. 목표

이 세미나의 목적은 수도권의 한국 문화유산의 내용 및 시대적, 사상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있었다. 그 내용은 종묘, 창덕궁, 화성 등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된 문화유산들이었으며, 서울의 궁궐 및 고분, 수원의 건릉과 용릉, 강화도, 남양주의 정약용 유적지 등도 포함되었다.

2. 수업형태 및 평가 방법

이 수업은 학생들에 의한 발표와 토론 및 교수의 강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시청각 기자재 활용은 적극 권장되었다. 이 세미나의 평가 방법은 출석 10%, 발표 및 토론 20%, 6회의 현장답사 보고서 40%, 학기말 논문 30%였다.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예습을 반드시 한 후, 수업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발표는 매주의 지정발표자 1명과 2명의 지정토론자에 의해 각각 30분 및 10분씩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적어도 발표일 2일 전까지는 A4 용지 2~4쪽의 발표문을 교수와 수강생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발표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케 하였다. 발표와 지정토론 후에는 일반 토론과 교수의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6회의 현장답사에 반드시 참가토록 되어 있었으며, 답사 전, 답사 목적지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의 궁궐과 종묘 등의 2차례의 답사는 세미나 시간의 토의 내용과 교수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4차례—수원 화성 및 용·건릉, 강화도, 남양주 및 장서각³⁰⁾—의 답사는 교수의 인도 아래 진행되었다. 필요시에는 사전 연락 후, 현장답사지의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을 듣기도 하였다. 답사일은 주말인 토요일을 이용

29) 2005학년도 제2학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학실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Reading and Field Research” 과목의 “Syllabus(Joint Lecture)”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0) 한국학중앙도서관의 중앙도서관(<http://library.aks.ac.kr>)으로서 조선시대 왕실 문헌의 보고다.

하였으며, 답사를 위한 교통비 및 관람료 등의 여비는 대학원의 지원을 받았다.

학기말 논문은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그 분량은 A4 용지 20쪽 내외였다. 모든 발표문, 리포트 및 논문은 주별 자료의 내용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서의 토론 및 현장학습 내용, 주석과 참고문헌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컴퓨터로 문서 작성케 하였다. 그리고 내용은 학생 각자의 독창적 해석과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하였으며, 형식은 *The Chicago Manual of Style*에 준하게 하였다. 동아시아어 로마자법도 규정에 준하도록 하였다. 한국어는 맥쿤라이샤워(McCune-Reischauer)법 또는 한국 정부안을, 중국어는 웨이드자일(Wade-Giles)법 또는 핀인(Pinyin, 拼音)법을, 일본어는 햅번(Hapburn)법을 적용케 하였다. 특히 한국어 로마자 법은 두 가지를 모두 숙지케 하였으나, 논문 등에서는 어느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사용케 하였으며, 다른 한 가지의 표기법에 따른 표기 리스트를 논문 등의 후기에서 첨부토록 하였다. 맥쿤라이샤워법은 세계한국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방법은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 정부안이 사용되고 있거나, 그 사용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논지의 일관성, 표현의 명료성, 형식의 준수 여부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에 의하였으며, 이 기준은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되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이 세미나의 교재는 *World Heritage in Korea: Culture, Memory, and Intangibility*(이하 *World Heritage in Kore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Reading and Field Research, World Heritage in Korea* 및 유인물이었다. *World Heritage in Korea*와 유인물을 제외한 교재들은 강의 교수진이 편찬한 교재였다.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는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등의 저술과 *Korea Journal*을 중심으로 한 관련 학술지의 논문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비롯한 관련 웹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4. 강의 내용

<표 2>는 주별 강의 내용이다. 첫 주는 강의 개요 설명, 한국어를 포함한 동아시아어 로마자 표기법 및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2주부터 13주까지는 궁궐, 화성, 강화도, 종묘, 정약용 유적지, 왕릉, 장서각에 대한 공부를 하였으며, 진행 방식은 특정 유산에 대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실 내 수업이 진행된 후, 현장답사를 하고, 수업과 답사를 바탕으로 한 리포트 제출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4~15주는 각 학생들의 학기말논문 주제에 대한 발표 및 그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표 2> 주별 강의 내용

Week	Content
1	Introduction to the Course
2	Palaces in Seoul, Video show
3	Field Trip to Palaces in Seoul
4	Suweon Hwaseong, Video show
5	Field Trip to Hwaseong
6	Ganghwado Area, Video show
7	Field Trip to Ganghwado (Ganghwa Island)
8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Video show
9	Field Trip to Jongmyo
10	Jeong Yagyong and His Traces in Namyangju Area
11	Royal Tombs in Gyeonggi Area
12	Field Trip to Royal Tombs
13	Treasures in Jangseogak Library
14	Final Essay Discussion
15	Final Essay Discussion

II. RFR 평가

RFR에서의 현장교육은 목표의 타당성과 시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표, 논평, 토론, 강의, 시청각 기자재 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도 적용되었다. 한국어를 포함한 동아시아어 로마자표기법을 첫 주의 수업에서 공부한 것도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강사, 교재, 학습량 및 답사 등의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³¹⁾

1. 강사

국내에서는 영어 한국학 전공자에 대한 논의 자체도 현재까지 학계에서 시도되지 못했으며, 영어 강의가 가능한 학자는 모두 영어 한국학 교육 전문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 영어 강의 가능자와 영어 한국학 전문가는 엄연히 다르며, 전자는 후자에 비해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³²⁾ 이러한 현상은 RFR 강좌에서도 재현되고 있으며, 내부 사정에 의해 외부 자격자가 강좌를 맡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 교재

*World Heritage in Korea*는 한글로마자표기법,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들의 역사, 내용, 가치 등과 관련된 자료 및 불교와 유교 등 그 유산들의 사상적 배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학술지, 단행본, 발표논문, 웹사이트 등에서 선별하여 모은 약 300쪽³³⁾에 달하는 편찬 자료집이었다.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는 이두 등의 한국의 언어와 삼국시대(57 B.C.E.~668)로부터 일제시대(1910~45)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문학 관련 자료들을 관련 영문 단행본들로부터 발췌한 323쪽³⁴⁾에 이르는 편찬 자료집이다. *Reading and Field Research*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등을 목표로 한국의 궁궐, 성, 이황(1501~70), 정약용(1762~1836), 김정희(1786~1856)와 그들의 유적지, 정원, 강화도, 경주, 북한 등의 지역사, 왕릉 등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 자료 및 관련 영문 단행본에서 발췌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31) 국내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영어 한국학 강의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Kim, Jongmyung, "Buddhist Culture in Yeongnam Area,"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 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사업 보고서』(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6), 48~49쪽 참조.

32) 김종명, 앞의 논문(2007), 35~36쪽.

33) 대부분의 자료들은 single space로 인쇄된 것이었다.

34) 수록 자료들은 모두 double space로 인쇄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World Heritage in Kore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및 *Reading and Field Research* 모두 교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와 *Reading and Field Research*의 경우, 인용문들의 출처도 밝혀져 있지 않아 표절의 위험성도 안고 있었으며,³⁵⁾ 이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최신 연구업적들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Reading and Field Research*의 경우, 한글 본문이 영문 번역본 없이 그대로 포함(pp. 82~85)되어 있기도 했으며, 일부 자료는 로마자표기법, 영문법 및 번역상의 오류 등이 발견(p. 40)³⁶⁾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가운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여유당전서』 등의 한문으로 기록된 일차문헌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로 읽는 삼국사기』,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 가지』 등의 한글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세미나의 수강생들은 한문은 막론하고, 한글 능력 검정을 요구받지 않은 학생들이었으므로, 이들 참고자료는 이 학생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2006학년도 2학기에도 같은 제목의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필수문헌 한 권이 더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교재 내용은 2005학년도와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 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추가된 문헌은 157쪽에 이르는 *Exploring Korean History Through World Heritage*였다. 이 책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4가지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Foreword”)되었으며, 각 유산별 문자정보와 그림정보를 동시에 수록하고 있었으나, 대학원 세미나 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 책은 교양서며, 학술서는 아니다. 더욱이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선

35)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와 *Reading and Field Research*는 모두 제일 뒷면의 “References”에서 참고문헌들을 명기하였으나, 본문을 구성하는 주제별 발췌 글들의 출처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36) “Chöndüngsa”란 제목의 본문 중 “Goryeo”(셋째 줄)는 정부안에 의한 로마자표기법을 따랐으나, “Chöndüngsa”는 McCune-Reishauer법에 의해 표기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this temple was began to rebuild by”(9~10번째 줄)는 “this temple was begun to be rebuilt by”의 오류로 보인다. Ingi Priest(넷째 줄)는 Priest In’gi가 옳다. 그러나 불교 승려는 priest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원어에 따라 Master In’gi 또는 Monk In’gi가 된다. 조선시대의 영어 표기는 “Yi Dynasty”(열넷째 줄)가 아니라, “the Chosön Dynasty” 또는 “the Joseon Dynasty”다.

행 연구업적들³⁷⁾도 참고 되지 않았다. 둘째, 잘못된 내용들도 발견된다. “The Tripitaka blocks were registered with the World Heritage by UNESCO in December 1995”(p. 65)는 그 한 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고려대장경판이 아니라 4동의 목조건물로 구성된 장경판전이다. 셋째, 오역도 발견된다. “that of remade Tripitaka”(p. 63)는 그 한 예다. “remade”란 이 경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며, the Second *Tripitaka Koreana*³⁸⁾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려대장경』을 “a collection of the three chapters of sutra, law, and treatises”(pp. 63, 65)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chapters”는 잘못된 표현이며, “the Korean edition of Buddhist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정도가 옳은 표현이다. 넷째, 모호한 표현도 발견된다. “The Tripitaka became a model for the Japanese Revised Tripitaka”(p. 65)에서 “the Japanese Revised Tripitaka”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분명하지 않다. 한국의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일본의 대표적인 대장경은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이다. 따라서 “the Japanese Revised Tripitaka”는 “the Japanese Taishō edition of Tripitaka”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글쓰기 양식도 국제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The Chicago Manual of Style* 등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국제학계의 규정에 의하면, *Hunminjeongeum*,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Jikjisimcheyojeol* (“Forward”), *Tripitaka Koreana*(p. 56), *Goryeo daejanggyeong*, *Daejangdogam*(p. 63) 등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 책에는 주석과 참고문헌이 없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표절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책의 집필진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⁹⁾ 결론적으로 RFR 교재의 경우, 질적 수월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37) 최준식(외),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 가지』(시공사, 2002)는 이 분야의 대표적 교양서 중의 하나다.

38) Kim, Jong-myung, “Tripitaka Koreana: Its Computerization and Significance for the Cultural Sciences in a Modern Globalized World,” James Lewis and Amadu Sesay(eds.), *Korea and Globaliz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London: RoutledgeCurzon, 2002), pp. 154-181.

39) 이 책의 책임연구원(Senior Researcher)과 공동연구원(Co-researcher)은 각각 한국 근·현대교육사와 일제 식민시기 경제사 전공자들이다.

3. 학습량

<표 3>은 답사 대상에 대한 문헌자료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답사를 실시한 2주부터 13주까지의 주별 학습량을 나타낸다.

<표 3> 주별 학습량(단위: 쪽)

주	Fall 2005 ⁴⁰⁾	Fall 2006 ⁴¹⁾	비고
2	25	36	서울 궁궐 자료 검토
3	0	0	서울 궁궐 답사
4	35	47	수원 화성 자료 검토
5	0	0	수원 화성 답사
6	22	33	강화도 자료 검토
7	0	0	강화도 답사 ⁴²⁾
8	30	41	종묘 자료 검토
9	0	0	종묘 답사 ⁴³⁾
10	5	5	정약용 유적지(남양주 지역) 자료 검토
11	4	4 ⁴⁴⁾	경기지역 왕릉(대릉, 동구릉) 자료 검토
12	0	11	정약용 유적지 및 왕릉 답사
13	0	0	장서각 답사
평균	20.2	29.3	

답사일을 제외한 주별 평균 학습량은 2005학년도 2학기에는 약 20쪽, 2006학년도 2학기에는 약 29쪽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에 비해 약간 많긴 하나, 큰 의미는 없다. 후자의 쪽수가 늘어난 것은 *Exploring Korean History Through World Heritage* 때문이었는데, 이 책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재들이 가진 문제점과 함께, 주별 학습량도 20여 쪽에 불과하던 사실은 큰 문제다. 국내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한국학 강의의 경우도 주별

40) 편찬 교재의 쪽수를 뜻한다.

41) 2006학년도 제2학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 개설과목인 “Reading and Field Research”의 “Syllabus(Joint Lecture)” 기준.

42) Fall 2006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생 전체 답사로 대체되었다.

43) Fall 2006에는 강화도 답사로 대체되었다.

44) 10~11주의 “정약용 유적지”와 “경기지역 왕릉” 자료 학습량은 Fall 2005와 Fall 2006의 “Syllabus”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편찬 교재 중의 일부인 *Reading and Field Research*에 포함된 “Chǒng Yagyong and His Traces”와 “Royal Tomes in Kyǒnggi Area”의 쪽수를 사용하였다.

학습량은 적어도 30쪽 정도며, 영어권 대학의 학생들인 경우 그 세 배인 90여 쪽 이상인 것이 보통이다.⁴⁵⁾ 대학원의 경우 학습량은 훨씬 더 많아지며,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0~300여 쪽에 달하는 학술서 1권 정도가 일반적이다.⁴⁶⁾ 따라서 RFR의 주 별 학습량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학원들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답사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답사 전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도를 제외하면, RFR의 교육과정 중, 답사 전·중·후의 과정은 구체적이지 못했거나, 결여되어 있었다. 타일러(T. W. Tyler)는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의 4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 4요소는 이후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⁴⁷⁾ 여기서는 답사 전, 답사 중, 답사 후의 3 부분⁴⁸⁾에 의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교육목적은 답사 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답사 중, 교육평가는 답사 후의 항목에 각각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 답사 전

현장교육도 교수와 학생이 속한 당해 대학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목표 설정, 방문지 선택, 학생 수, 교육 기간, 자료 조사 및 검토, 전략 개발, 사전 방문, 설문지 작성 등은 현장교육 전의 중요 준비 사항들이다.

45) 미국 Harvard 대학교 한국학 교과목의 학습량에 대한 일례에 대해서는 McCam, David R., "From Andong to the Harvard Core Curriculum: A Case Study in Bringing Korean Studies into the Curriculum," paper presented on 'Session IV. Competing Paradigms of Korean Studies Development' i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 Foundation, Seoul Kyoyuk Munhwa Hoegwan, December 13~14, 2001, pp. 1~5 참조

46) 국내와 북미주 한국학계 사이의 학습량 비교에 대해서는 김종명, 앞의 논문(2007), 33, 37~39쪽 참조

47) Tyler, R. W.,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박법석,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본 종교적 경험의 통합적 성격」, 한국종교학회(서강대학교, 2004. 11. 6) 발표논문, 1쪽에서 재인용.

48) Burford, *op. cit.*, p. v.

(1) 목표 설정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현장교육에 임하는 일차적 동기는 수업과 관련된 학교 숙제 때문⁴⁹⁾이지만, 현장교육도 일차적으로는 명확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현장교육은 답사란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답사는 답사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답사의 목적이 유적지 여행과 그다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세계유산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RFR의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RFR의 교육과정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강좌의 운영 방법은 크게 문헌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답사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문헌자료의 양과 질이 이 강좌의 목표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2) 방문지 선택

답사 현장을 선택하기 위하여 4가지 교육적 기준을 적용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1) 학생들에게 친밀한 곳, (2) 역사성, (3) 규모 및 (4) 거리다. 이 예에 따르면, 역사성의 경우, 가장 오래된 곳부터 현대적인 곳으로, 규모는 가장 큰 곳부터 가장 작은 곳으로, 거리의 경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⁵⁰⁾ 이 기준에 의하면, 한중연의 RFR 강좌에서 수도권 세계유산을 학습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역사성, 규모 및 거리 때문이었다. 답사대상은 모두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것들이었으며, 그 규모도 답사 대상물이 지어지던 당시로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표적 건물이거나 능이었다. 그리고 수도권의 유산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들이 한중연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거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RFR의 방문지 선택은 역사성, 거리, 규모면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3) 학생수

바람직한 현장교육을 위한 적정 학생 수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9) Sarma, P. Ravi. "An Insider Perspective from the Temple," *RSN*, 19-4(AAR, October 2004), p. iii.

50) Bellan-Boyer, Lisa, "Temples of Culture: Using Museums for Site Visits," *RSN*, 19-4(AAR, October 2004), p. xii.

가능한 한 소집단으로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이 좋은 데, 이렇게 하는 것이 동료들
이나 수행자들과 대화하기에 좋기 때문이다.⁵¹⁾ 외국의 경우, 답사지로 학생을 대
위할 수 있는 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 10~14명을 적정 수로 제시한 예⁵²⁾
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원생 수는 10명 미만이므로, 학생
수와 관련된 큰 문제는 없다. RFR의 경우도 학생 5명과 교수 2명이었기 때문에
답사 참가자 수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4) 교육기간

현장교육기간도 사안별로 다양할 수 있으며, 특정 요일, 2박 3일, 일주일 등의
예가 보고되고 있다. RFR에서는 각 답사지 방문을 당일로 하였는데, 답사지가 수
도권에 있어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목표
설정, 답사지 선정, 학생 수, 교육기간 등이 결정된 후에는 답사지에 대한 정보 분
석, 전략 개발 및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

(5) 정보 분석

학생들은 교수의 추천 자료, 도서 자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입수
한 후, 답사지 방문 시에 중점을 둘 문제와 방문지에서의 예절 등에 대해 답사지
방문 전에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반드시 토론해야 한다. RFR에서도 이 점은 준
수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교재 등이 가진 한계성으로 인해 답사
대상의 역사, 내용, 가치, 특징, 의의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6) 전략 개발

현장답사의 경험은 수업 시간에서의 토의를 통해 수업 내용과 일체감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 중의 토론과 읽고 이해한 것을
현장답사와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⁵³⁾ 특히 그 답

51) Flueckiger, *op. cit.*, p. iii.

52) Burford, *op. cit.*, p. v.

53) Carlson, *op. cit.*, p. iv.

사지 방문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교과과목들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RFR에서는 현장 답사 전 특별한 전략 개발이 시도되지 않았다.

(7) 사전 방문

답사 장소에 대한 사전 방문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 낭비의 위험성도 크며, 설사 현장에서 면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⁵⁴⁾ 사전 방문을 바탕으로 교수는 답사지의 역사를 포함한 관찰 포인트에 대한 사전 설문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⁵⁵⁾ 또한 학생들 스스로 각자 질문들을 준비하게 하여 답사지에서 질문토록 할 필요도 있다. RFR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 강좌 자체를 위한 답사지 사전 방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수진은 이 강좌와는 별도로 답사지들에 대한 방문 경험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답사지에서의 시간 소요 등을 비롯한 사전 방문을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강좌의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관찰 포인트와 관련된 사전 설문지를 나누어 주지도 않았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게 하지도 않았다.

(8) 관찰 준비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답사 여행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하고, 노트북, 펜, 점심, 물, 용돈 등도 준비하도록 한다.⁵⁶⁾ 학생들 스스로 관찰 준비를 하게 할 필요도 있으며, 관찰 목적이 가능한 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보고서를 쓰는 데 있음을 학생들에게 기억시켜야 한다. 그리고 답사지에는 관찰 대상과 관련된 실제 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기록할 수 있도록 미리 도착하게 해야 한다.⁵⁷⁾ RFR의 교수진은 현장 답사시 학생들이 이러한 관찰 준비를 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RFR의 경우, 강사, 교재, 학습량, 현장교육 등의 다방면에서 상당한

54) Niebuhr, Gustav. "Site Visits from a Journalist's Perspective," *RSN*, 19-4(AAR, October 2004), p. xi.

55) Carlson, *op. cit.*, p. iv.

56) Burford, *op. cit.*, p. v.

57) McGinn, *op. cit.*, p. ix.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특히 현장교육과 관련, 교육목표, 방문지 선택, 학생 수, 교육기간 등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 및 분석도 교실 수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답사지 별 심층적인 내용은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답사 전의 전략 개발, 사전 방문, 관찰 준비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RFR의 경우 답사 전의 준비 사항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답사 중

답사 중에는 현지조사 노트 작성, 현장사진 촬영, 지방 전문가의 도움, 학생들의 자율적 참가 및 관찰이 중요하다.

(1) 현지조사 노트 작성

교수는 답사 중에 학생들이 반드시 현지조사 노트를 작성토록 한다. 관찰 대상에 대한 기록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노트에 참가자, 건축적 특징 등을 포함한 관찰 대상의 배경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한다. 현지조사 노트에는 이를 작성한 날짜 및 페이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주제별로 라벨도 붙이게 하며, 광범위하고도 상세한 노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참고문헌 등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노트한 것을 확인 및 대조케 한다. 이를 위해 답사 중에는 학생들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는데, 행사안내문, 일과표, 예불문과 같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RFR 답사시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현지조사 노트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스스로도 노트 작성을 거의 하지 않았다.

(2) 현장사진 촬영

학생들이 현장 사진도 찍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 사진들은 후에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장소, 물체 뿐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까지도 찍도록 하는 것이 좋다.⁵⁸⁾ 이 경우, 플래시가 필요 없는 고속 필름(ASA 400 or higher)이나 저녹스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⁵⁹⁾ RFR 답사에서

58) Carlson, *op. cit.*, p. iv.

59) McGinn, *op. cit.* p. ix. 현장조사와 관련된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크레인·양그로시노, 앞의 책, 254~287쪽 참조.

는 기념용 사진 외, 학문적 목적의 사진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지방 전문가의 도움

그 지방의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답사지를 설명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구경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유익한 경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로부터 해석을 듣는 것이 더 좋다.⁶⁰⁾

현재 국내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RFR에서도 문화유산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답사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학술적 목적의 답사의 경우, 문화유산해설사에 의한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수와 대학원생 스스로가 답사 내용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4) 자율성 부여

답사지 방문 중에는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항들을 자유롭게 접하게 할 것이며, 교수 스스로도 학생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질문들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교수가 현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⁶¹⁾ 학생들은 사전에 준비된 답사 포인트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해야 한다. 관찰과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관찰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참여가 병행된 관찰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²⁾ 그러나 RFR 수강생들은 사전에 답사 포인트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답사지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율성도 부여 받지는 못했다.

3) 답사 후

답사 후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답사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리포트에 첨부하도록

60) Burford, *op. cit.*, p. v.

61) *Ibid.*, p. v.

62) 크레인·양그로시노, 앞의 책, 94~111쪽;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아르케, 2004), 47~64쪽.

록 하고, 그 동안 공부해 온 것과 관련시켜 이 자료들을 토론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 숙고, 평가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⁶³⁾

(1) 분석

관찰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 관찰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 그 관찰 대상이 화성이었다면, 어느 장소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또는 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건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등의 질문이 분석의 예들이다.

(2) 숙고

화성의 경우, 팔달문 또는 남문은 어떤 종류의 건물인가?, 이 건물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건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당신의 견해는 관찰자들의 견해와 어떻게 대비 또는 대조되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답사를 시도한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는가? 관찰 전략은 적당하였는가?, 더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룹 구성원들은 전원 이 관찰에 참가하였는가? 각 그룹의 활동성, 공헌도 및 노력의 양은 어떠한가?⁶⁴⁾ 이번의 관찰은 미래의 연구나 토론을 위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했는가?라는 등이 평가 대상 항목이다. 그러나 RFR에서 실시된 답사들의 경우, 답사 후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RFR은 강사, 교재, 학습량, 현장교육의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현장교육 전·중·후의 과정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현장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 채택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최근에는 양적연구 방법보다 질적연구방법⁶⁵⁾의 중요성이 강조⁶⁶⁾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연에서 답

63) McGinn, *op. cit.*, pp. ix~xiv.

64) 그룹 활동의 평가 기준은 Charls Walker와 Thomas Angelo의 집단 노력 수업 평가법(Collective Effort 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 CECAT)이 권장된다, McGinn, *ibid.* p. ix.

65) 관찰과 참여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66) 윤택립, 앞의 책, 15~23쪽.

사지까지의 교통편은 대학원 당국에서 준비되었어야 할 것이나, 제도적 미비로 그렇지 못해 인솔 교수 2명의 자가용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답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교실 내의 수업시간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교수업적평가지 이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대학원 당국은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답사 관련 행정도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IV. 불국사·석불사 현장교육안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세계불교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영어 현장교육 안을 구성해 보자. 영어강좌 개설의 목적,⁶⁷⁾ 교육목표, 방문지 선택, 사전 준비, 학생 수, 교육기간, 방법론 등의 전제 조건에 대한 검토는 성공적인 현장답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종교 공동체에 대한 현장 답사를 위해서도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⁶⁸⁾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모델이 되어 왔으나, 그것은 종교적 경험과 같은 학습자들의 경험세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종교적 경험과 같이 분석과 논리 중심의 사고를 넘어선 통합적인 체험의 영역도 교육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교육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성’에 초점을 두고, 직관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적 통찰과 자각을 목적으로 하며, 종교적 정서와 인식 자체를 교육내용⁶⁹⁾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불국사와 석불사는 불교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이 문화유산들에 대한 현장교육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대학원 현장교육과정안과 대학 현장교육과정안을 작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67) 영어 강좌 개설의 목표는 해당 대학의 홍보 또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 등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실력 있는 진정한 국제인으로 성장토록 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Kim, *ibid*(2006), p. 48.

68) 종교공동체를 방문하기 전 숙지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The Pluralism Project,” <http://www.pluralism.org/research/guidelines.php>(2005-04-12 검색), pp. 1~2 참조. 이 프로젝트는 미국 Harvard 대학교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69) 박범석, 앞의 논문, 1~18쪽.

1. 국제대학원 현장교육과정 안(70)

1) 수강자

영어 한국학 강의의 수강대상자는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토플 600점(PBT 기준) 이상의 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에서는 200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수업목표

영남지역의 세계불교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의 역사, 내용, 가치, 특징을 중심으로 이 유산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 교육과정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작성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전문 학자로서 심층적인 현장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비교적 시각에서 모색한다.

3) 평가방법

이 논문 5~6쪽의 “평가 방법”에 준한다.

4) 교재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단행본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에 의한 편찬교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 교재는 그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RFR 강좌에서 주로 참고된 자료들의 출처는 *Korea Journal*이었다. 그러나 이 학술지의 집필진은 대부분 국내인이며, 시대면에서도 대부분 현대를 다루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강좌 주제와 관련성을 가진 전문학술지들인 *Journal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Korean Culture*, *Journal of Asian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등에 실린 논문과 학술 단행본들도 반드시 참고 될 필요가 있다.

70)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될 강의계획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5) 학습내용 및 학습량

주 별 학습내용은 답사 대상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가치, 특징 등 다방면에 걸쳐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주별 학습량은 국내 학계의 현실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최소한 200여 쪽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6) 답사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답사는 앞에서 살펴 본 답사 전·중·후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답사 전 요소 중에는 특히 사전 답사 및 설문지 작성, 답사 중에는 답사 노트 작성, 답사 후에는 평가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7) 주별 강의 계획안

<표 4>는 주별 강의 계획안이다.

<표 4> 주별 강의계획안

주	구분	내용	형태	과제물
1	강의 개요	강의계획 설명	강의	
2	세계유산 및 답사	세계유산 및 답사 포인트 설명	강의	
3	불교 및 불교문화	불교 및 한국의 불교문화 이해	강의	주 리포트 1 제출
4	불국사 문헌 연구 1	일차자료, 연구현황	발표, 토론, 강의	주 리포트 2 제출
5	불국사 문헌 연구 2	역사, 구조, 사상적 배경	발표, 토론, 강의	주 리포트 3 제출
6	불국사 문헌 연구 3	특징, 가치	발표, 토론, 강의	주 리포트 4 제출
7	설문지 작성	답사 설문지 작성	토론	
8	석불사 문헌 연구 1	일차자료, 연구현황	발표, 토론, 강의	
9	석불사 문헌 연구 2	역사, 구조, 내용	발표, 토론, 강의	주 리포트 5 제출
10	석불사 문헌 연구 3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발표, 토론, 강의	주 리포트 6 제출
11	설문지 작성	답사 설문지 작성	토론	주 리포트 7 제출
12	현장 답사	불국사, 석불사 답사	현장 답사	
13	답사 평가	답사 평가	토론	답사 평가서 제출
14	학기말 논문	개요 발표	발표, 토론	
15	학기말 논문	개요 발표	발표, 토론	
16	학기말 논문	제출		

1주차는 강의계획서, 동아시아어 로마자표기법, 논문작성법 등이 다루어진다. 2주차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정의, 등재절차, 등재효과, 등재현황 및 문

헌 자료를 중심으로 답사 전·중·후의 포인트에 대해 검토한다. 3주차는 계·정·혜 삼학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이해와 한국의 불교문화 현황에 대해 공부한다. 4~6주차는 불국사 관련 문헌자료 및 연구업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국사의 역사, 구조, 사상적 배경, 특징 및 가치를 집중 분석한다. 7주차는 3~6주차까지의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불국사 답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8~11주까지는 불국사의 예에 준하여 석불사에 관해 검토하고, 답사 설문지를 작성한다. 12주차에는 불국사와 석불사를 실제로 답사하며, 13주차에는 답사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한다. 13~14주차는 각 학생들의 학기말 논문 주제에 대한 개요 발표회가 개최된다.

2. 학부 현장교육과정안

1) 수강자

반드시 영어 강의 수강 가능자로 제한시켜야 한다. 나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영어 능력 검정을 거치지 않은 수강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국내 학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 토플 530점 (PBT 기준) 이상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수업목표

영남지역의 세계불교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의 역사, 내용, 가치, 특징을 중심으로 이 유산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3) 수업형태

교수의 강의를 주요 수업형태가 되고, 학생들은 그룹 단위로 1회에 한해 지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10분간에 걸쳐 진행하며, 파워 포인트 사용은 적극 권장된다. 발표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발표회 준비를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각 그룹은 그 준비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개인이나 발표 그룹의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 시간이 10분간 진행되며, 이후 교수의 논평과 보충 강의를 이어진다.

4) 평가방법

출석 20%, 발표 10%, 중간고사 20%, 학기말고사 20%, 현장보고서 30%로 구성된다. 그러나 평가 항목, 평가 비율 등은 각 학교별 특성에 따른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5) 필수교재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영문 교재는 아직 없다. 따라서 교수가 강의 목적에 맞게 편찬해 사용해야 한다.

6) 학습량

학습량도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학계의 현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주별 학습량은 최소 30~50쪽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7) 주별 강의 계획안

<표 5>는 주별 강의계획서다. 전체적인 강의 계획 내용은 세계 및 한국의 유산,

<표 5> 주별 강의계획 안

주	구분	내용	형태
1	강의 개요	강의계획, 로마자표기, 보고서작성 양식	강의
2	세계유산 개요	세계유산의 정의, 등재절차, 등재현황 등	강의
3	답사포인트	답사 전·중·후의 답사 포인트 설명	강의
4	불교의 이해	불교의 기초 이해	강의
5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 이해	발표, 토론, 강의
6	한국의 불교문화	한국의 불교문화 이해	발표, 토론, 강의
7	불국사 문헌 연구 1	역사, 구조	발표, 토론, 강의
8	중간고사	필기시험	발표, 토론, 강의
9	불국사 문헌 연구 2	사상, 특징, 가치	발표, 토론, 강의
10	석불사 문헌 연구 1	역사, 구조, 내용	발표, 토론, 강의
11	석불사 문헌 연구 2	사상, 특징, 가치	발표, 토론, 강의
12	기말고사	필기시험	사전 답사
13	설문지 작성	불국사, 석불사 답사 설문지 작성	토론
14	현장 답사	불국사, 석불사 답사	현장 답사
15	답사 평가	그룹별 답사 평가	토론
16	답사보고서	제출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지식 습득, 답사 및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주차는 강의계획서 설명, 로마자표기법 숙지, *The Chicago Manual of Style*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작성양식 등을 설명한다. 2주차는 세계유산의 정의 등재절차, 등재효과, 등재현황 및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개요를 검토한다.

3주차는 답사 전·중·후의 포인트를 분석한다. 4~6주차는 불교유산 이해를 위한 불교의 기초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 및 불교문화유산에 대해 공부한다. 7주와 9~11주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불국사와 석불사의 역사, 내용, 사상,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해 각각 검토한다. 8주차와 2주차에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가 필기시험으로 각각 실시된다. 그리고 12주차의 토요일에는 교수와 학생 대표가 석불사와 불국사를 사전 답사한다. 13주차는 사전 답사를 행한 학생 대표에 의한 사전 답사 보고와 학생들에 의한 답사 설문지가 작성된다. 설문지 작성시에는 사전 답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 또는 강조점들을 반영시킨다. 14주차는 불국사와 석불사 답사가 시행되며, 학생들은 답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상세한 답사 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15주차는 답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그룹별로 진행한다. 15주차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내용 및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V. 맺음말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을 영어로 공부하려는 국내의 국제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남지역의 세계불교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현장교육과정안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 이 교육과정안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교육을 위한 시안이므로, 실제 시행 경험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미비점 보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른 세계유산 및 주요 유산들에 대한 현장교육과정안⁷¹⁾ 뿐 아니라, 지식수준이나 나이 등에 따른 현장교육과정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71) 유교유산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과정안에 대해서는 정우락, 앞의 논문, 10~14쪽 참조.

참고문헌

- 김귀배, 「유네스코 문화유산사업에서 본 문화유산교육의 의미와 가치」. 문화재청·(사)한국의 재발견, 문화유산 교육세미나 학교 교육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의 집, 2006. 12. 14.
- 김종명, 「국내의 ‘해외한국학’ 교육: 현황, 과제, 방향」. 慶熙大學校 亞太地域研究院 開院 20周年 記念 國際學術會議, 地域學으로서의 韓國學의 回顧와 展望, 中國大連外國語學院, 2007年 1月 5日 ~ 6日, 27~52쪽.
- 김종명, 「국제대학원 현장교육과정안: 영남지역의 세계불교유산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 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사업 보고서』.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6, 26~45쪽.
- 김종명, 「국제대학원과 한국학의 세계화」. 『국제한국학회』 2권, 1997, 151~191쪽.
- 김종명, 「서평: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 Vol. 1」. 『국제한국학회지』 1권, 1996, 185~87쪽.
- 김종명, 「석굴암은 석불사다: 사상적 증거」.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서강대학교, 2004. 11. 6, 발표문.
- 김종명, 「불교문화 답사와 교육: 영남지방의 세계불교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5. 5. 14 발표문.
-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5. 5. 14, 발표문.
- 오만석,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원 모형 개발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유홍준, 「팔공산 자락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사회(유음), 『답사여행의 길잡이 8: 팔공산 자락』. 서울: 돌베개, 1997.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4.
- 은지용·모경환,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대회, 차이와 공존의 사회과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8월 7~8일, 287~327쪽.
- 이돈희, 「大學教育課程의 發展趨勢와 革新의 課題」. 영산대학교 특강, 2002. 07. 25 원고.
- 정우락,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영남지역에서의 한국학 통합 연계 교육과 영어 강의, 경북대학교, 2005. 6. 10~11.
- 줄리아 크레인·마이클 앙그로시노(공저)/한경구·김성례(공역),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인간과 문화에 대한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나?』. 서울: 一潮閣, 2000.
- 천경화, 『韓國文化財總說』. 서울: 白山出版社, 1993.
- 최준식(외),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 가지』. 서울: 시공사, 2002.

허숙. 「교육과정학 탐구의 성찰: 역사와 전망」. 『教育課程研究』 20권 3호, 2002, 1~22쪽.

“The Pluralism Project.” <http://www.pluralism.org/research/guidelines.php>, 2005-04-12 검색.

Bellan-Boyer, Lisa, “Temples of Culture: Using Museums for Site Visits.” *Religious Studies News(RSN)* Vol. 19, No. 4,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AAR), October 2004.

Berger, Michael S., “Site Visits to Synagogues.” *RSN*, 19-4, AAR, October 2004.

Brodeur, Patrice C., “Integrating Site Visits in the Pluralism Project at Connecticut College.” *RSN*, 19-4, AAR, October 2004.

Burford, Grace G., “The Nuts and Bolts of Site Visits.” *RSN*, 19-4, AAR October 2004.

Carlson, Jeffrey, “Site Visits and Epistemological Diversity in the Study of Religion.” *RSN*, 19-4, AAR October 2004.

Flueckiger, Joyce Burkhalter, “Unexpected Learning Opportunities of the Site Visit.” *RSN*, 19-4, AAR October 2004.

Grayson, James Huntley, *Korea: A Religious History*. 1989; London: RoutledgeCurzon, 2002.
<http://plaza.snu.ac.kr/~historia>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7년 2월 10일 검색.

Hussain, Amir, “Site Visit to a Mosque.” *RSN*, 19-4, AAR October 2004.

Jorgensen, John, “Problems in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Buddhism: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2004 Geumgang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Buddhism, October 23~24, 2004, pp. 121~161.

Kim, Jongmyung(ed.), *World Heritage in Korea: Culture, Memory, and Intangibility*. Pusan: Youngsan University, 2004.

Kim, Jongmyung, “Buddhist Culture in Yeongnam Area.”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 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사업 보고서』,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06, 48~51쪽.

Kim, Jong-myung, “*Tripitaka Koreana*: Its Computerization and Significance for the Cultural Sciences in a Modern Globalized World.” James Lewis and Amadu Sesay (eds.), *Korea and Globaliz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London: RoutledgeCurzon, 2002, pp. 154~181.

Kim, Keong-il(ed.), *Pioneers of Korean Studies*.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Program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u. [2004].

- McGinn, Sheila E., "Integrating Field Research in the Introductory Religion Course." *RSN*, 19-4, AAR, October 2004.
- McCann, David R., "From Andong to the Harvard Core Curriculum: A Case Study in Bringing Korean Studies into the Curriculum." paper presented on 'Session IV. Competing Paradigms of Korean Studies Development' i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 Foundation, Seoul Kyoyuk Munhwa Hoegwan, December 13~14, 2001.
- Niebuhr, Gustav, "Site Visits from a Journalist's Perspective." *RSN*, 19-4, AAR October 2004. *Reading and Field Research*. The Program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u. [2004].
- Sarma, P. Ravi, "An Insider Perspective from the Temple." *RSN*, 19-4, AAR October 2004.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Exploring Korean History Through World Heritag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5.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영남지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현장교육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그 대상은 한국학을 영어로 공부하려는 국내의 국제대학원 및 학부생들이다. 이 논문은 문헌자료와 국내외 학부 및 국내 국제대학원에서의 나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제1장에서는 현장교육의 실례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발견된 현장교육의 현안 및 방향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불국사와 석불사에 대한 영어 현장 교육과정 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현장교육안은 하나의 시안이며, 추후 현장교육 경험의 축적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안 개발이 필요하다.

● 투고일 : 2007. 2. 6.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불국사(Bulguk Monastery), 석불사(Seokbul Temple),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영어 현장교육안(English-language Curricula for Site Visits).